

“5·18 광주 이야기 뮤지컬에 제대로 담고 싶었다”

컬처 & 피플

뮤지컬 연출가 유희성



‘뮤지컬계 흥행사’로 불리는 광주 출신 유희성 연출가가 최근 ‘빛골 아리랑’ 두번째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데 대해 뒤늦게나마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지난해는 짧은 시간내 급하게 만들다 보니 뼈대 구조만 만들었다면, 올해는 그 뼈대를 기초로 보다 디테일하게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광주의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광주정신을 잊지 않고 만들려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지요. 다행히 공연이 만족스럽게 마무리 된 것 같아 후련합니다.”

지난달 말 뮤지컬 ‘빛골 아리랑’의 두 번째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 짓고 모처럼 망중환을 누리고 있다는 유희성(57) 연출가와 7개월만에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두 번째 공연이다 보니 첫째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컸다는 유 연출가는 “관객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찾아와 주었고 반응도 좋았다”며 뒤늦게나마 감사인사를 전했다.

“광주 무대에 올려졌던 다른 대형 작품들을 많이 보았지만 관객이 많지 않았어요. 창작뮤지컬이다 보니 더욱 열려가 됐어요. 지난해 첫 공연은 전석 무료였기 때문에 매년이었어요.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찾아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빛골 아리랑’은 한국전쟁과 5·18민주화운동 등 굴곡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올해는 음악과 영상, 소품 등의 수정 보완을 거쳐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 공연은 유독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졌던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낭독하는 배우를 보며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공연을 강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배우들

광주의 역사·정신 담은 뮤지컬 ‘빛골 아리랑’ 브랜드 공연 탄생 희망

광주서 활동하다 서울 진출 ‘로미오와 줄리엣’ 등 연출 뮤지컬계 흥행사로

역시 공연 기본이 남달랐을 겁니다. 배우들이 자기 임무를 다하는게 당연하지만 ‘빛골 아리랑’을 통해 뜨겁게 맺어진 인연이랄까요.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팀워크가 좋았던게 기억에 남습니다. 작품이 끝난후에도 가끔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 연출가는 ‘뮤지컬계 흥행사’로 불린다. ‘로미오와 줄리엣’, ‘모차르트’, ‘소나기’, ‘겨울연가’, ‘명성황후’ 등 대형 뮤지컬에는 언제나 그의 이름이 뒤따랐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그는 광주시립극단에서 활동할 당시 독일에 갔다가 음악극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우리의 창작극을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로 판소리, 사물놀이, 대금, 한국무용 등 모든 것을 익혔고 보다 큰 무대를 위해 서울로 진출해 성공한 케이스다.

연출가로서의 길도 탄탄대로였다. 뮤지컬 연출가 임봉작이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한국뮤지컬대상 작품상과 연출상을 휩쓸었다.

그런 그가 지난해 고향 광주를 찾아 광주 세계아리랑축전 주제 공연인 ‘빛골 아리랑’의 연출을 맡았을 때 지역 문화계는 광주 브랜드 공연 탄생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었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올해 앵콜 공연이 성사되자 그 기대는 희망으로 바뀌었다.

많은 스텝과 배우들의 노력이 뒷받침됐지만 ‘유희성’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한 셈이다. 광주가 아닌 서울 공연도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 있다.

“10월 서울에서 아리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축제 담당자가 이번 ‘빛골 아리랑’ 공연을 보고 서울에서도 공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 성사되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게 준비했던 만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는 유 연출가는 몸담고 있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뮤지컬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음 작품을 준비중이다.

“이번엔 무용극 연출을 맡았습니다. 10월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사제동행’이라는 무용극입니다. 연출과 기획 구성 등이 마무리되고 배우들이 연습에 들어갔어요. 11월과 내년 1~2월에는 창작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와 라이선스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12일 기자는 도시재생의 성 공사례로 꼽히는 인천 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IAP)을 취재하기 위해 이승미(53) 관장을 만났다. 인천아트플랫폼은 1883년 개항기의 건축문화재와 옛 건물들을 예술가들의 창작스튜디오로 되 살려낸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립현대 미술관의 교육팀장을 지냈던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IAP를 이끌어 오고 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문화마인드 가 있는 윤장현 선생이 광주시장으로 당선돼 기대가 크다”면서 “단체장의 마인드가 행정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만큼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자는 아내와 함께 한참 동안 전시장의 출품작들을 꼼꼼히 둘러 본 후 “이미 있는 전시”라며 기획을 맡은 이씨를 격려했다. 이날 그녀의 눈에 비친 윤 당선자는 진정 미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애호가였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기자 역시 그동안 여러 문화현장에서 윤 당선자와 마주했던 ‘장면’들이 하나 둘씩 떠올랐다. 지난해 가을, 복합문화공간 ‘메이홀’(May hall)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위한 음악회’에서 만난 그는 파페라 가수의 노래에 몸을 흔드는, ‘음악을 즐길 줄 아는’ 관객이었다. 이에 앞서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뒤뜰이에서 본

문화광주가 꿈꾸는 市長은?

광주로서 힘을 받을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4년 전 강진 세라돈 아트 프로젝트에서 윤 광주 시장 당선자와 만났던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강진 세라돈 아트 프로젝트는 강진군이 제38회 강진청자축제와 2010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청자로 대표되는 전통예술과 현대미술장치의 비엔날레의 만남을 시도한 의미 있는 전시회였다. 당시 강진군으로부터 프로젝트 기획을 제안받은 그녀는 한국화가 김선두 중앙대 교수와 함께 회화, 사진, 공예, 조각, 만화 등 유명작가 54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강진청자박물관에 선보였다.

광주도 아닌 강진에서, 그것도 이렇듯 대면 다 알만한 중진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전시회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그중에서도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준 사람은 윤 당선자였다. 개막식에 눈도장을 찍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유명인사들과 달리 윤 당선

자는 아내와 함께 한참 동안 전시장의 출품작들을 꼼꼼히 둘러 본 후 “이미 있는 전시”라며 기획을 맡은 이씨를 격려했다. 이날 그녀의 눈에 비친 윤 당선자는 진정 미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애호가였다.

앞으로 약 10여 일 후면 윤 당선자가 문화광주의 새로운 시장으로 취임한다. 올해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완공,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프로젝트,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등 대형 이벤트들이 숨가쁘게 펼쳐지는 중요한 해다.

이젠 문화도시의 수장으로서 문화를 ‘챙겨야’ 하는 행정가로 입장이 바뀌게 되지만 지금까지처럼 종종 문화현장을 찾아가는 애호가로서의 역할, 사진, 공예, 조각, 만화 등 유명작가 54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강진청자박물관에 선보였다. 광주도 아닌 강진에서, 그것도 이렇듯 대면 다 알만한 중진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전시회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그중에서도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준 사람은 윤 당선자였다. 개막식에 눈도장을 찍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유명인사들과 달리 윤 당선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책 ‘... 신기한 여행’

SBS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동화책 ‘에드워드 블레인의 신기한 여행’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집계됐다. 이 책은 교보문고가 17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베스트셀러’에서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정여울)과 ‘감정수업’(강신주)을 각각 2위와 3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신기한 여행”을 비롯해 베스트셀

러 10위 안에 포진한 책 가운데 무려 7권이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출된 이른바 ‘미디어셀러’였다.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감정수업’, ‘미비포 유’(조조 모에스, 4위), ‘겨울왕국 무비 스토리북’(6위), ‘1cm+’(김은주, 7위), ‘인생수업’(법륜, 8위) 등은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이 있거나 TV 프로그램이 발간 소식을 알린 책들이다.

/연합뉴스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매 3억
- 나주 시청앞 택지지구 4차선 도로변 대지 778㎡ 매9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영역 유재관

급히 찾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하실분들
출찰이 대기중이네요

지역이,금액이,종류가
맞지않아서요

부동산이라면
[무엇이든][지역 상관없이][금액상관없이]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다음 즐거운부동산세상

부동산뉴스,채택방식,건강정보
전국 세 번째이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급매물도있어요

- 1)금남로 오피스텔 39㎡ 6세대 땅처리
- 2)롯데역 원룸빌딩 50%급처분
- 3)대형 콜라텍 거저드립니다
- 4)화순,담양 전답,임야 싼매물 많아요
- 5)대로코너 대단지임구 싼땅도있어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수익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주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